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김광호 수석연구위원(kwangho@bnkfg.com)
강대일 책임연구원(di0618@bnkfg.com)

동남권지역 금융기관 대출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둔화되었다. 대기업대출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대출 증가율은 금년중 1% 내외에 머물고 있는 반면 비제조업은 10% 내외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동남권 금융기관 예금은 지난해 3/4분기까지 전국과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4/4분기 이후 은행의 저축성예금 감소 영향으로 급속히 둔화되었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신탁과 저축은행의 10% 이상 신장세에 힘입어 증가세가 둔화는 되고 있으나 은행권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대출 증가세 둔화

동남권지역 금융기관 대출 증가세는 2015년 1/4~3/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10%대 초반에서 지난해 4/4분기 이후 8% 내외로 둔화되었다. 중소기업대출이 9~10%에서 금년 들어 8%대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대기업대출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 감소하였다. 반면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호황 등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4분기말 44.1%에서 2016년 2/4분기말 45.7%로 높아졌다.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중 43.3%에서 43.4%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대기업대출 비중은 12.5%에서 10.9%로 하락하였다.

동남권 대출 추이 (기간말 잔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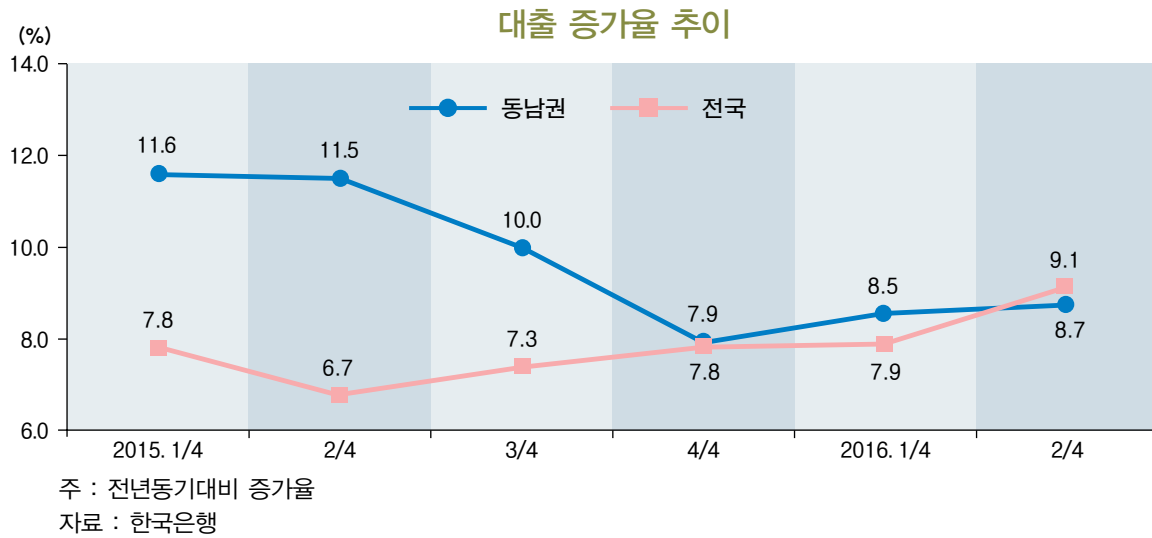
(단위:조원,%)

구 분	2015. 1/4	2/4	3/4	4/4	2016. 1/4	2/4
중소기업대출	101.6 (9.5)	104.7 (10.4)	107.0 (9.9)	108.2 (9.5)	110.6 (8.9)	113.4 (8.4)
가계대출	103.5 (11.5)	105.0 (9.6)	108.0 (9.4)	113.0 (10.2)	114.5 (10.6)	119.4 (13.7)
대기업대출 등	29.4 (19.6)	30.5 (22.6)	28.4 (12.5)	28.2 (-5.4)	29.4 (0.0)	28.4 (-7.0)
합 계	234.5 (11.6)	240.2 (11.5)	243.4 (10.0)	249.4 (7.9)	254.5 (8.5)	261.2 (8.7)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한편 전국과 비교해 보면 2015년 1/4분기~2015년 3/4분기중 동남권 대출 증가세는 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4/4분기 이후 동남권 대출증가세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의 경우 분석기간중 대출 증가세가 비교적 완만하게 둔화되었다. 이에 비해 비은행금융기관은 2015년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비은행금융기관중 대출규모 1~2위인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신탁 및 저축은행도 2015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동남권 금융기관별 대출 추이

(기간말 잔액 기준)

(단위:조원,%)

구 분	2015. 1/4	2/4	3/4	4/4	2016. 1/4	2/4
은행	173.4 (10.6)	177.4 (10.5)	181.2 (9.9)	184.8 (9.3)	187.3 (8.0)	191.6 (8.0)
비은행금융기관 ¹⁾	61.1 (14.8)	62.8 (14.6)	62.2 (10.5)	64.6 (4.0)	67.2 (10.0)	69.6 (10.8)
저축은행	2.3 (-8.0)	2.3 (4.5)	2.4 (4.3)	2.6 (18.2)	2.7 (17.4)	2.8 (21.7)
신용협동조합	5.5 (12.2)	5.7 (11.8)	6.1 (17.3)	6.4 (20.8)	6.8 (23.6)	7.2 (26.3)
상호금융	32.8 (10.8)	33.7 (9.4)	34.7 (9.5)	36.1 (10.4)	36.8 (12.2)	38.4 (13.9)
새마을금고	14.9 (6.4)	15.0 (3.4)	15.2 (2.7)	15.6 (4.0)	16.0 (7.4)	16.8 (12.0)
기타 ²⁾	5.7 (147.8)	5.9 (156.5)	3.8 (65.2)	3.9 (-43.5)	4.8 (-15.8)	4.4 (-25.4)

주 : 1)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수출입은행, 우체국, 신탁사

2) 수출입은행, 우체국(예금담보대출), 신탁사

3)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금년들어 빠르게 증가

동남권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을 보면 지난해 4/4분기부터 은행의 경우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중 대출규모가 가장 큰 상호금융은 30% 이상의 증가율을 지속해왔다. 신협은 1/4분기 이후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밖에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의 중소기업대출도 지난해 4/4분기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로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해 4/4분기 이후 은행에 비해 높은 수신 증가세를 보인 비은행금융기관도 대출 확대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 중소기업대출 추이

(기간말 잔액 기준)

(단위:조원,%)

구 분	2015. 1/4	2/4	3/4	4/4	2016. 1/4	2/4
은행	93.3 (9.1)	95.8 (9.7)	98.1 (9.6)	98.6 (8.7)	100.4 (7.6)	102.1 (6.6)
비은행금융기관	8.3 (13.4)	8.9 (18.2)	8.9 (13.3)	9.6 (18.8)	10.2 (22.9)	11.3 (27.0)
(저축은행)	1.5 (-11.6)	1.5 (1.1)	1.6 (4.0)	1.8 (19.4)	1.9 (26.7)	1.9 (26.7)
(신용협동조합)	0.8 (10.2)	0.9 (8.6)	1.0 (12.7)	1.0 (17.0)	1.2 (50.0)	1.6 (77.8)
(상호금융)	4.4 (33.1)	4.8 (32.8)	5.2 (35.3)	5.7 (37.7)	6.0 (36.4)	6.5 (35.4)
(새마을금고)	0.7 (2.1)	0.7 (11.7)	0.8 (22.1)	0.8 (25.0)	0.9 (28.6)	1.0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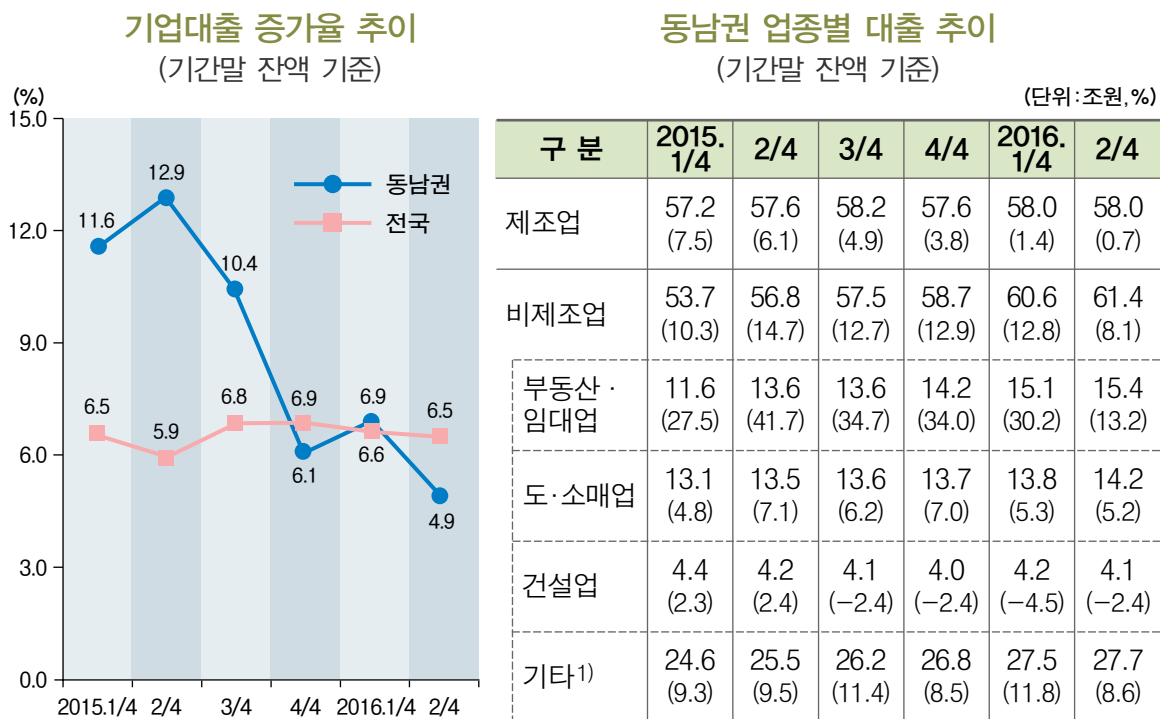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제조업 대출 증가세 금년들어 급격히 둔화

동남권지역 금융기관 기업대출은 2015년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대한 대출은 금년중 신장세가 1% 내외에 머물고 있다. 반면 비제조업은 2015년 1/4분기~2016년 1/4분기중 10.3%~14.7%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금년 2/4분기중 신장세가 8.1%로 둔화되었다. 특히 비제조업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은 2015년 2/4분기~2016년 1/4분기중 30% 이상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다가 2/4분기중 13.2%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세가 높다.

이와 같이 동남권지역 금융기관 기업대출중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제조업 생산이 계속 부진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은 신용 리스크와 연체율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여신을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주 : 1) 교육, 보건, 공공행정, 운수업, 전기, 가스, 출판, 방송
농업, 어업, 임업, 광업, 금융 등
2)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동남권지역 금융기관 기업대출 증가세는 최근 둔화된 반면 가계대출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특히 금년 2/4분기에는 은행 14.1%, 비은행금융기관 13.2%로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비은행금융기관중에서는 최대 대출 금융기관인 상호금융이 금년들어 10% 이상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새마을금고는 금년 2/4분기중 대출신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밖에 신한이 지난해 4/4분기 이후 20% 이상의 대출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축은행도 금년들어 14%대로 신장세가 확대되었다.

동남권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추이
(기간말 잔액 기준)

(단위:조원,%)

구 분	2015. 1/4	2/4	3/4	4/4	2016. 1/4	2/4
은행	62.4 (13.0)	63.2 (11.1)	65.2 (11.3)	68.5 (11.6)	69.1 (10.7)	72.1 (14.1)
비은행금융기관	41.1 (9.3)	41.8 (7.5)	42.8 (6.7)	44.5 (8.3)	45.4 (10.5)	47.3 (13.2)
(저축은행)	0.7 (0.0)	0.7 (16.7)	0.7 (16.7)	0.7 (0.0)	0.8 (14.3)	0.8 (14.3)
(신용협동조합)	3.6 (5.9)	3.8 (8.6)	4.0 (11.1)	4.4 (22.2)	4.5 (25.0)	4.7 (23.7)
(상호금융)	25.5 (9.9)	26.1 (7.9)	26.8 (7.6)	27.9 (9.4)	28.4 (11.4)	29.4 (12.6)
(새마을금고)	11.1 (9.9)	11.1 (2.8)	11.2 (0.9)	11.3 (3.6)	11.5 (3.6)	12.3 (10.8)
합 계	103.5 (11.5)	105.0 (9.6)	108.0 (9.4)	113.0 (10.2)	114.5 (10.6)	119.4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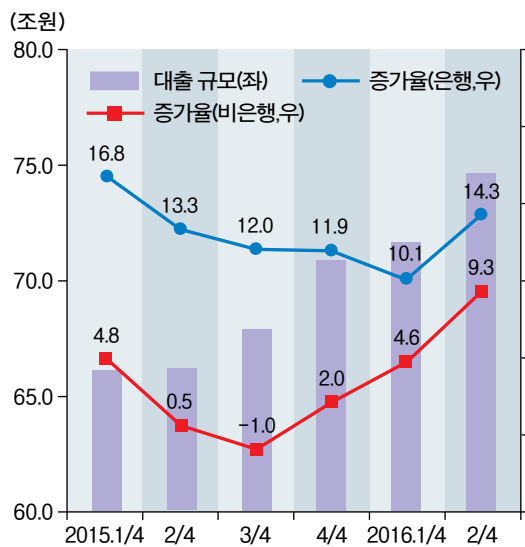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원인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보면 은행의 경우 2016년 1/4 분기까지 완만히 둔화되다가 2/4분기중 확대 전환되었다. 이에 비해 비은행금융기관은 2015년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금년 2/4분기 증가율은 9.3%로 지난 6분기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증가세가 확대되는 것은 금융위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은행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 금리격차 축소도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수요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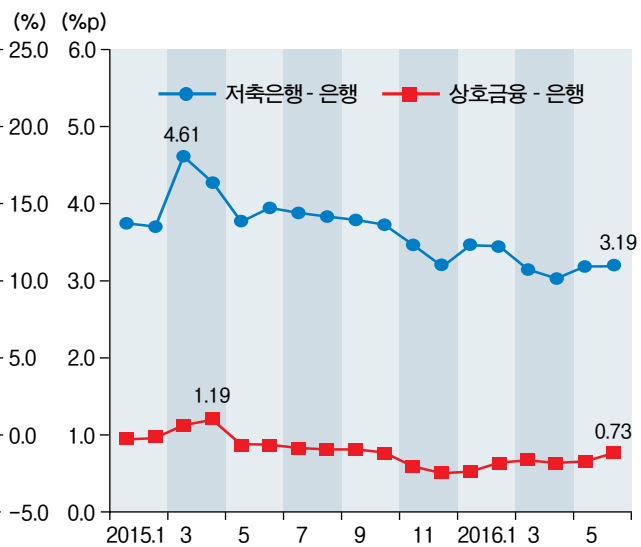
은행과 저축은행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격차를 보면 2015년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3월 4.61%p에서 2016년 6월 3.19%p로 1.42%p 축소되었다. 상호금융과의 금리격차도 지난해 최고수준을 기록한 4월 1.19%p에서 금년 6월 0.73%p로 0.46%p 축소되었다.

동남권 주택담보대출 추이
(기간말 잔액 기준)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은행 ·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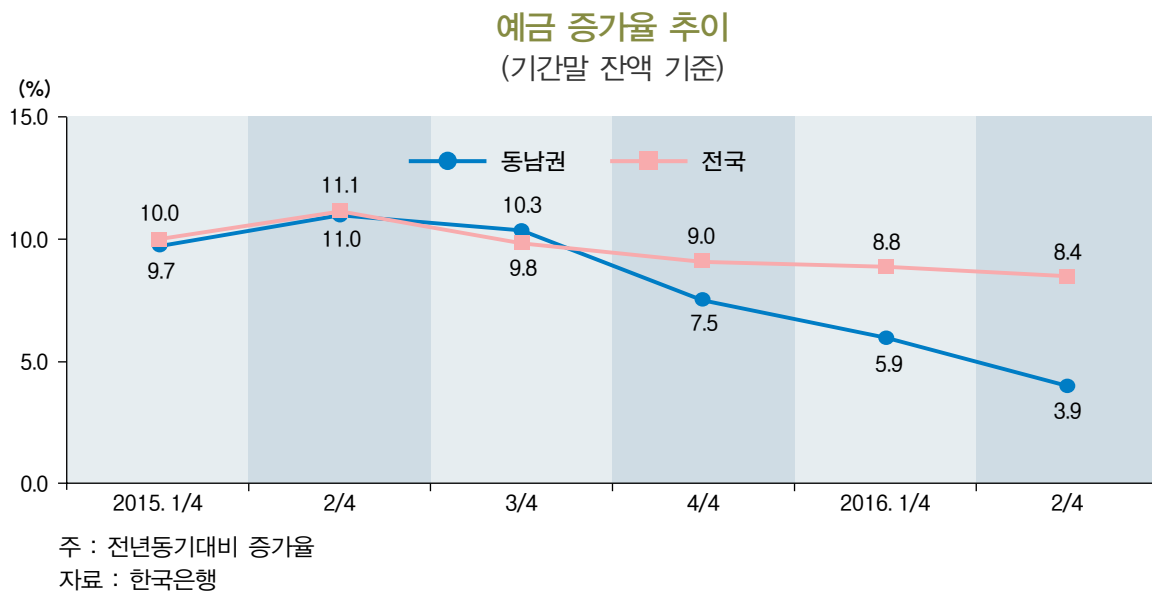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세 둔화

동남권지역 금융기관 예금 증가세는 2015년 1/4~3/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10% 내외로 전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금년 2/4분기중 3.9% 증가에 그쳤다. 이에 비해 전국 금융기관의 증가세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둔화되었지만 동남권보다 높은 9%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동남권 예금 증가세가 전국보다 크게 둔화된 것은 조선·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여 기업과 가계의 악화된 경제사정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저금리 상황에서 동남권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에 따라 금융기관 예금이 분양대금 등으로 이탈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의 경우 2015년 4/4분기 이후 예금잔액이 128조원에서 큰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금년 2/4분기의 예금신장세는 1.4%에 불과하다. 비은행 금융기관도 2015년 4/4분기 이후 예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은행보다 매우 높다.

동남권 금융기관별 예금 추이

(기간말 잔액 기준)

(단위:조원,%)

구 분	2015. 1/4	2/4	3/4	4/4	2016. 1/4	2/4
은행	123.3 (11.7)	126.5 (12.5)	126.6 (10.9)	128.4 (6.5)	128.5 (4.2)	128.3 (1.4)
시중은행	50.1 (11.8)	50.9 (11.9)	50.4 (10.0)	50.3 (2.2)	50.2 (0.2)	50.5 (-0.8)
지방은행	42.0 (12.3)	43.2 (13.1)	43.4 (9.9)	43.7 (6.8)	43.7 (4.0)	43.7 (1.2)
특수은행 ¹⁾	31.2 (11.4)	32.4 (13.3)	32.8 (14.7)	34.4 (12.1)	34.6 (10.9)	34.1 (5.2)
비은행금융기관	126.6 (7.8)	129.4 (9.5)	131.1 (9.8)	132.5 (8.4)	136.2 (7.6)	137.7 (6.4)
저축은행	3.6 (2.9)	3.6 (9.1)	3.7 (8.8)	3.9 (14.7)	4.0 (11.1)	4.1 (13.9)
신용협동조합	7.7 (8.5)	7.9 (9.7)	7.9 (8.2)	8.3 (10.7)	8.7 (13.0)	9.0 (13.9)
상호금융	45.3 (7.3)	46.2 (6.9)	46.8 (7.1)	47.7 (6.7)	48.4 (6.8)	49.3 (6.7)
새마을금고	23.7 (6.3)	23.7 (4.9)	23.8 (3.9)	24.0 (3.4)	24.3 (2.5)	24.7 (4.2)
기타 ²⁾	46.3 (9.7)	48.0 (14.3)	48.9 (16.2)	48.6 (11.7)	50.8 (9.7)	50.6 (5.4)

주 : 1)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2) 수출입은행, 우체국, 신탁사, 자산운용사

3)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은행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중은행이 2015년 4/4분기 이후 매우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금년 들어서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2/4분기에는 1.2% 증가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지난해 4/4분기 이후 특수은행의 예금증가세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금융기관중 예금 규모가 큰 상호금융은 예금증가세가 지난해 1/4분기 이후 7%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신탁과 저축은행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예금신장세가 확대되어 10%를 넘고 있다.

은행 저축성예금 감소세 지속

동남권지역 은행예금중 저축성예금이 지난해 4/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감소폭도 확대되었다. 또한 지난해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으로 잔액이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비은행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은 지난해 3/4분기 이후 규모가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있다. 반면 수시입출식예금은 금년들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저금리 장기화로 대기성 자금이 증가하여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동남권 예금 종류별 추이

(기간말 잔액 기준)

(단위: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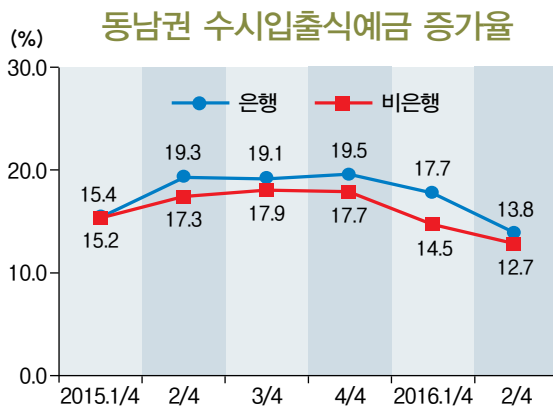
구 분	2015. 1/4	2/4	3/4	4/4	2016. 1/4	2/4
은행	123.3 (11.7)	126.5 (12.5)	126.6 (10.9)	128.4 (6.5)	128.5 (4.2)	128.3 (1.4)
(수시입출식)	51.5 (15.4)	54.8 (19.3)	56.4 (19.1)	59.2 (19.5)	60.6 (17.7)	62.3 (13.8)
(저축성)	71.8 (9.4)	71.7 (7.8)	70.2 (5.1)	69.2 (-2.8)	67.9 (-5.4)	66.0 (-8.0)
비은행금융기관	126.6 (7.8)	129.4 (9.5)	131.1 (9.8)	132.5 (8.4)	136.2 (7.6)	137.7 (6.4)
(수시입출식 ¹⁾)	8.3 (15.2)	8.6 (17.3)	8.7 (17.9)	9.3 (17.7)	9.5 (14.5)	9.6 (12.7)
(저축성 ²⁾)	58.2 (4.6)	58.5 (4.1)	58.7 (3.4)	59.1 (3.4)	60.7 (4.4)	61.6 (5.4)

주 : 1) 종금사의 CMA, 신탁·상호금융·새마을금고의 자립예탁금 및 일시예탁금

2) 종금사의 발행어음,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신탁·상호금융·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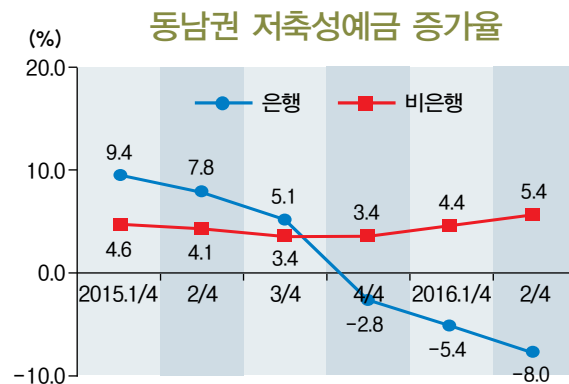
3)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참고문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_____, 「지역금융통계」, 2016.8.

_____, 「조사통계월보」, 2016.6.

_____, 「지역 경제동향」, 2016.8.

금융감독원, “가계부채 대응방향”, 2015.12.14.

_____, 금융통계정보시스템 (fisis.fss.or.kr)

_____,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www.cretop.com)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상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2016년 아시아머니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Asiamoney 誌

영국에 소재한 글로벌 금융전문지인 유로머니(Euromoney)의 아시아 자회사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음.
The Asset誌, Financeasia誌 등과 함께 아시아 3대 금융월간지로 평가

2016년 국가별 최우수 은행



BNK 부산은행

BNK BNK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nkfg.com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